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光州日報

인생60파워 정기예금 금리 5.32 %
DAEG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광주 25/30℃ 목포 24/29℃ 여수 25/28℃
단기 4344년 (음력 7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41호 1판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野대선주자 선호도…호남민심 변화 조짐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바람'을 만들었던 호남 민심이 최근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 민심의 변화는 야권은 물론 전체적인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손학규 하락세

리더십 부재…30%대 지지율 10%P 이상 급락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호남 민심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표에 당선, 민주당을 이끌어 왔던 손 대표는 좀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4·27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 을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계기를 잡았지만 각종 현안에서 '리더십 부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손 대표의 전국적 지지율은 9~1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 직후의 14%대에 비하면 지지율이 크게 빠진 셈이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로 손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호남 민심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손 대표 지지율은 7월말부터 18~19% 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도 손 대표의 지지율은 15%~24%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야권의 대선 후보군 가운데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30% 초중반대를 나타냈던 지지율에 비하면 무려 10% 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 부재가 차기 대선의 비전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호남의 지지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손 대표가 추후 개혁공천과 야권통합 등을 주도하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급부상

영·호남 지지 기반…광주·전북서 손대표 추월

손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자서전 출판을 계기로 야권의 대선주자군으로 본격 편입된 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손 대표를 추월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여기에 호남 민심도 문 이사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하고 있다.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데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MB 정부 및 보수 세력과의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뷰의 지난 7월 '진보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에서 문 이사장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2%, 25%를 기록, 각기 29%, 15%를 나타낸 손 대표의 지지율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남지역에서도 손 대표가 27%, 문 이사장이 23%의 지지율을 보여 오차 범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승계하고 있는 문 이사장이 호남과 영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세를 확장해 나간다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인 독주 체제인 대선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야권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18일)를 이틀 앞둔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서거 2주기 추모열기 고조

기념공원위원회, 광주 추도식·분향소 설치
내일 현충원 공식 추도식…野 잠룡 총출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18일)가 다가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충장로 YMCA 무진관에서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을 열고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기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도사, 추모시 낭송, 시립예술단의 추모공연,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와 업적에 대한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강운태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대통령께서 지적한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가 여전한 현실 속에서 우리 범민주 진영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봉근 의장도 "김 전 대통령이 '남북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새로운 불씨 살려주셨듯이 우리 사회 각 계층뿐 아니라 남과 북, 동·서가 화합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태 5·18 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가 한평생 꿈꿔왔던 세상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며 추도시를 낭송했다.

또 이날 YMCA 무진관에는 시·도민 추모분향소가 설치돼 시·도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연보'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보 헌정, 이희호 여사의 감사 인사, 한상대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유시민 대표 등 야권 내 잠룡들이 총출동해 김 전 대통령의 '적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야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17일에는 백범기념관에서 추모위원회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공식 추도식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개최되며, 추도식에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고검장 김학의 광주 지검장 주철현

김학의 고검장

주철현 지검장

법무부는 16일 광주고검장에 김학의(55·연수원 14기) 인천지검장을, 광주지검장에 주철현(52·연수원 15기) 창원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관련기사 2면〉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49·연수원 17기)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52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김학의 신임 광주고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충주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춘천지검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 출신인 주철현 신임 광주지검장은 여수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5회 사시에 합격해 목포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성영훈 광주지검장은 대검 공관송무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국민수(48·연수원 16기) 청주지검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임정혁(52·연수원 16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종행기자 golee@